

| 2017년 설 명절 한우 시황 전망 |

작년 수준 밀돌고 평년 가격은 유지 할 듯... 보합세 전망

농축식품유통경제연구소 농장에서 식탁까지 | 옥 미 영

올해 설날은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 맞는 명절이라는 점에서 모두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한우는 연중 추석과 설 두 번의 명절 기간 동안 한우고기가 가장 많이 소비되는 시기로 알려져 있으며 이중 설은 추석보다 한우고기 판매가 조금 더 활발하게 이뤄져 지금까지 설 명절은 한우고기 최대의 소비 분수령으로 인식되어 왔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한우의 경우 소고기 수요가 평소 대비 설에는 170%, 추석에는 140% 가까이 증가한다. 부위별 수요를 살펴보면 갈비가 설은 435%, 추석은 506% 증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지난해 9월 28일 김영란법 시행 직후 한우는 외식소비에 직격탄을 맞으면서 한우전문판매점과 전문식당의 매출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때문에 업계에선 명절 소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해온 '한우 선분세트' 판매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농축식품유통경제연구소가 유통업계 바이어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올해 설 명절 한우판매량이 20%에서 많게는 25%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는 응답이 64%에 달할 정도로 이번 설 한우고기 판매 동향은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바이어들이 전망하는 설 명절 한우판매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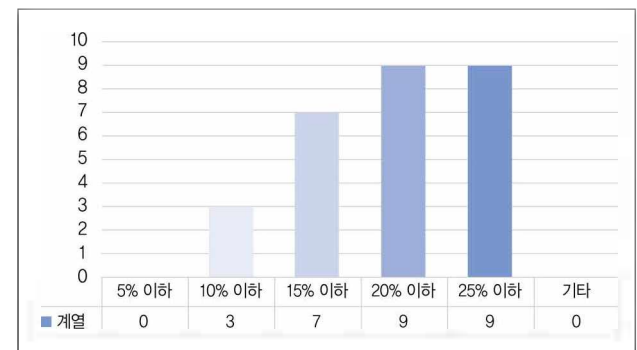


표 11 유통업계 바이어들이 전망하는 설 명절 한우 판매량. 농장에서 식탁까지 10월호. (백화점 및 대형유통매장 바이어 28명 설문조사 결과)



올 한우 명절 한우가격 시황은?

현재로써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선물세트 판매 감소로 한우고기 소비가 예년 수준을 밑돌 것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 대부분의 중론이다.

하지만 선물세트 수요가 감소한다 하더라도 떡국과 탕용, 제수용 산적, 여기에 짐용 갈비 등 가정 내 소비를 감안할 때 큰 폭의 가격하락으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소가 바이어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한우고기 판매가 예년에 비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실제 이들이 계획하는 설 대비 물량 확보는 감소 전망보다 다소 보수적인 20% 정도 물량을 축소하겠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설 물량 확보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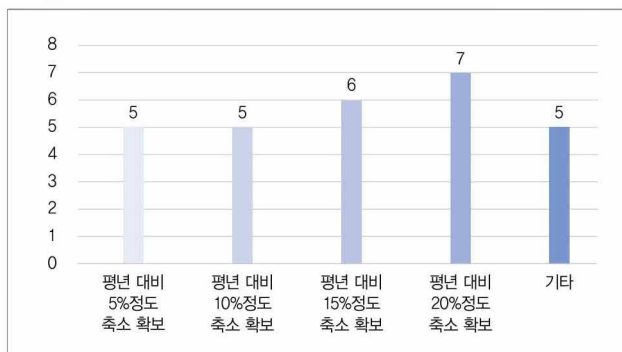


표 2 | 유통업계 바이어들의 이번 설 물량 확보 계획
평년에 비해 물량은 20% 정도 축소하겠다는 비율이 25%로 가장 높았다. 판매량 감소 예측치보다 실제 물량 확보는 이보다 다소 보수적이어서 바이어들의 한우고기 판매 의지는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응답에서 선택까지 10만회)

한우고기 설 명절 특수 사수하라

특히 예년과 같이 각종 선물용 접대를 위한 한우고기 선물세트 소비는 감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최근 1~2인 가구 증가와 김영란법 시행을 감안한 5만 원 및 10만 원 미만의 '소포장 실속형 선물세트' 판매가 호응을 얻을 경우 한우 소비 감소 폭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로 이번 설 명절 한우브랜드 경영주체들은 정육 소포장을 중심으로 한 5만 원 미만의 '영란세트'를 속속 개발해 선보이고 있다. 여기에 정부와 한우자조금은 이번 설 명절 한우고기 소비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5만 원 및 10만 원 이내 두 가지 실속형 선물세트와 관련해 박스당 5,000원의 포장비를 지원한다. 이 밖에도 가정 내 한우고기 소비 촉진을 위해 선물세트와는 별도로 등심, 불고기, 국거리 등의 단일품목에 대해서도 매출액의 일정부분을 지원하는 등 프로모션을 실시해 한우고기 소비 진작에 나선다.

소고기 명절소비 증가율

품 목	설·추석 전 10일간 증감률(%)	
	설 소비량 증감률(%)	추석 소비량 증감률(%)
소고기 전체	170.4***	140.1***
갈비	435.3***	506.9***
등심	89.7***	55.0***
목심	120.9***	115.5***
사골	339.2***	77.0***
사태	1241.8***	42.7**
설도	199.7***	119.9***
안심	87.6***	93.7***
앞다리	102.7***	176.7*
암지	212.6***	131.6***
우둔	234.6***	195.0***

표 3 | 주1)유의수준 10%, ** 유의수준 5%, *** 유의수준 1%(아래 동일 적용)
주2)수도권 소비자 패널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응답진출청, 10~11)한 자료는 활용해 명절소비 트렌드를 분석한 결과

소포장 실속형 선물세트 출시와 함께 올해 설부터 본격화된 '프리미엄 한우 선물세트'는 한우선물시장의 새로운 전략 상품으로 등장해 판매 동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동안 저가 및 대량 판매 방식을 진행했던 국내 최대의 할인점 이마트는 2017년 설 선물세트의 전략 상품으로 숙성한우 선물세트를 준비, 판매에 돌입했다. 한우 선물세트의 경우 냉동세트가 주를 이루던 것에서 갈수록 냉장 선물세트 비중이 증가하는 점에 착안, 이번 설 선물세트 핵심 상품으로 최근 소비층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숙성한우를 활용한 냉장 선물세트를 기획했다는 게 이마트의 설명이다. 이 같은 프리미엄 한우 선물세트는 기업들이 대량으로 선물세트를 주문했던 기존의 명절 선물 패턴에서 김영란법 시행 이후 개인이 가까운 지인과 친척에게 선물하는 날개형 선물판매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면서 프리미엄 시장을 의식한 유통업체의 새로운 시장 공략으로 풀이된다.

김영란법 시행 이전까지 한우가격이 초고공세를 지속하면서 업체마다 정육 체화 현상으로 '설 분량 작업이 쉽지 않다'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한우협회가 지난 연말 한우자조금과 함께 실시한 100g당 1,980원의 파격 할인행사로 밀려있던 정육이 상당부분 해소되면서 이 역시 한우 구매분량 증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한우협회에 따르면 지난 연말 롯데슈퍼와 공동으로 실시한 한우 분고기 및 국거리 할인행사 기간 동안 한우 정육량은 총 274톤(54억 6,000만 원)에 달해 유통업체들의 재고부담을 상당 부분 털어냈다.



올 설 명절 예년가격 수준 유지할 듯

소비 부문에서 이처럼 다소 긍정적 요인들이 있지만, 실제 소비자들이 경기침체 등으로 달한 지갑을 어느 정도 열어 한우고기 소비 진작 효과를 거둬지는 비지수다.

이기에 설 전 산지의 출하대기 분량이 많은 데다 농가들의 가격 하락 불안 심리로 일시에 출하가 과다하게 집중될 경우 공급물량 증가에 따라 추가 가격 하락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때문에 이번 설 명절은 지난해 설 명절 성수기(설을 앞둔 한 달 전 평균 기간) 가격인 kg당 1만 8,550원 수준까지 상승하는 등 호황을 전망하기는 어렵지만, 현재와 같은 공급 및 수요 등의 요인을 감안할 때 예년의 평균 가격 수준인 kg당 1만 6,000원~1만 6,500원 선에 머무르거나 높게는 1만 7,000원대 초반 선에서 형성될 것으로 조심스럽게 점쳐진다.

다만, 설과 추석 명절에 갈비 등의 소비가 집중됐었던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설 명절 갈비 선물세트 수요 감소에 따른 명절 이후 부위별 수급 불균형과 그에 따른 가격 하락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설 명절 이후의 상황에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명절 의존도가 높았던 갈비 부위가 하루아침에 미선호 부위로 전락해 한우고기 유통에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갈비 같은 선호부위가 새로운 비선호부위로 편입될 경우 이를 소비할 수 있는 방법을 단기간에 찾아내지 못하면 등심, 안심, 채끝 등 다른 부위 가격을 추가로 올려야 할 수도 있어 가격 상승에 따른 소비감소를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㉞